

성주호에서 풍년 기원 통수식 열려

✎ 이형동 기자 | ⓒ 승인 2024.04.21 15:56

한국농어촌공사, 양질 농업용수 공급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성주지사가 18일 한 해 농사 시작 전, 풍년 기원을 담아 농업용수를 처음으로 흘려보내는 행사인 경북 대표 통수 행사를 성주호에서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성주지사가 지난 18일 한 해 농사 시작 전, 풍년의 기원을 담아 농업용수를 처음으로 흘려보내는 행사인 경북 대표 통수 행사를 성주호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병환 성주군수, 김성우 성주군의회 의장 등 성주군 관계자와 한국농어촌공사 송성일 농어촌계획이사, 김우상 경북지역본부장, 지사 운영 대의원 등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호에서 통수 선언 및 수문 개방했다.

송성일 농어촌계획이사는 "통수식을 계기로 공사 전 임직원은 농업인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되새기며,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공사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성주호 물관리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기여한 수리시설감시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돈문 성주지사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수지 관리 등을 통해 지역 내 3,217ha의 농경지에 양질의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동 기자 hd60lee@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